

조사보고서

2014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2014. 3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2014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및 1/4분기 실적	2
1. BSI 현황	2
2. 기업규모·형태별 BSI 동향	3
3. 권역별 BSI 동향	4
III. 기업 경영 애로 및 정책과제	5
1. 기업 경영 애로	5
2. 정책과제	6
IV. 시사점	7

I. 조사 개요

□ 목적: 국내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하여 이를 지수화, 분석, 발표함으로써 기업경영 및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대상 : 전국 제조업체 2,425개사

□ 기간 : 2014년 2월 14일 ~ 2014년 2월 27일 (휴일제외 10일)

□ 조사내용

1. 2014년 1분기 경기실적 및 2분기 경기전망
-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설비투자, 자금사정
2. 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과제

□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작성방법

-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 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 \frac{\text{호전표시업체수} - \text{악화표시업체수}}{\text{(BSI)} \quad \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II. 2014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및 1/4분기 실적

1. BS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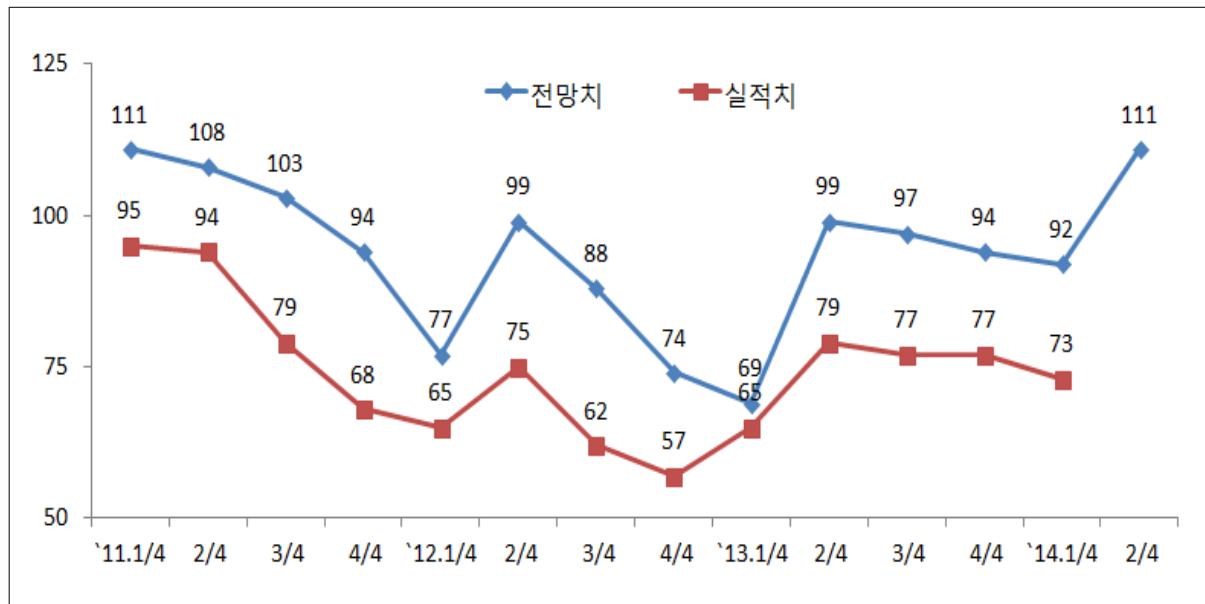
○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전 분기대비 19포인트 상승한 111을 기록

- 2011년 1분기(111) 이후 3년래 최고치이며, 2011년 3분기(103) 이후 10분기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섬.
- 2분기 BSI 상승은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1분기 기업 실적은 전 분기대비 4포인트 하락한 73을 기록

-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세였던 전망치와 동일한 추세로 실적치도 올해 1분기까지 하락함

[그림 1] 최근 기업경기 실적 및 전망 지수 추이



주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2. 기업규모·형태별 BSI 동향

○ 기업경기전망지수는 기업의 규모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상승함.

- 규모별로 대기업은 1분기 97에서 2분기 113으로 상승했으며, 중소기업도 1분기 91에서 2분기 111로 개선됨.
- 형태별로 수출기업은 1분기 100에서 2분기 115로 증가했으며, 내수기업도 1분기 90에서 2분기 110으로 상승함.

[표 1] 기업규모·형태별 BSI전망 비교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14년 1분기	14년 2분기						
경기전망	97	113	91	111	100	115	90	110
경기실적	83	-	71	-	80	-	71	-

○ 세부 항목별로 2분기 전망에서 자금사정(92)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100)를 넘으면서 경영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 규모별로 대기업은 모든 세부항목의 전망치가 기준치 이상이었으며, 중소기업도 자금사정(93)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기준치를 넘김.
- 형태별로 수출·내수기업은 자금사정만 각각 96, 94로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으며, 그 외 지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함.

[표 2] 세부 항목별의 BSI 동향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14년 1분기 실적	14년 2분기 전망								
매출액	76	117	93	126	73	116	81	120	75	117
영업이익	66	102	81	113	63	100	72	109	64	100
생산량	82	118	95	128	80	117	89	124	80	117
설비투자	100	108	103	114	100	107	100	110	100	108
자금사정	70	92	86	100	67	93	74	96	70	94

3. 권역별 BSI 동향

- 권역별로는 제주권(9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함.
 - 강원권은 지난 분기(100)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119를 기록하면 권역별 BSI중 최고치를 기록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관련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충청권은 전분기(98)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118로 두 번째로 높은 BSI를 기록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경제를 주도할 IT와 첨단산업 등 창조경제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기대감 상승
 - 제주권은 지난 분기(81) 대비 9포인트 증가했으나 90으로 기준치(100)를 넘지 못함
 - 저가덤핑관광을 제한하는 중국의 '여유법(旅遊法·관광진흥법)' 시행(13.10)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 엔화약세로 일본인 관광객 감소 등에 의해 주요산업인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표 3] 2014년 2분기 권역별 경기전망 비교

구 분	14년 1분기 전망	14년 2분기 전망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97	111
2.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98	118
3. 대경권(대구, 경북)	82	105
4.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93	113
5.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86	112
6. 강원권	100	119
7. 제주권	81	90
전 국	92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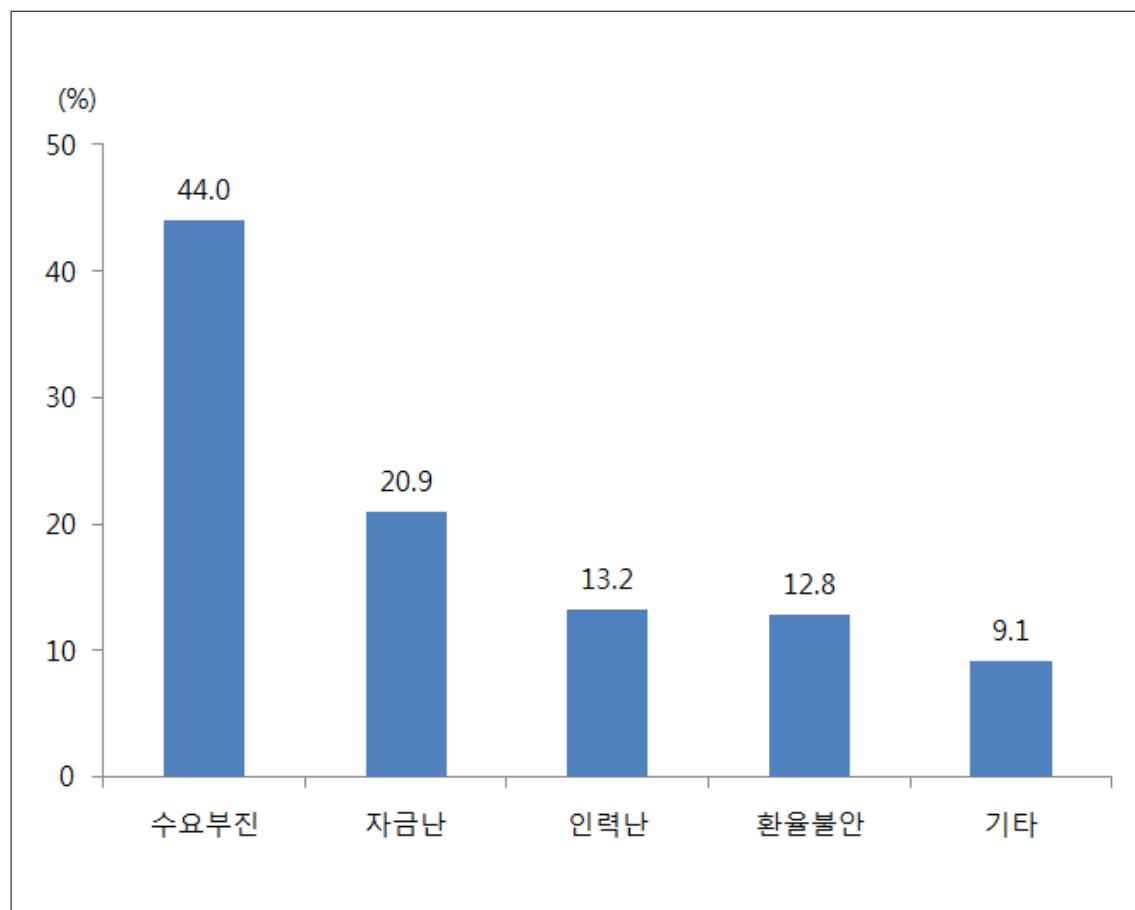
III. 기업 경영 애로 및 정책과제

1. 기업 경영 애로

○ 기업들은 경영애로 요인으로 내수 및 수출 등 수요부진을 가장 많이 꼽음.

- 응답기업의 44.0%가 수요부진으로 답함. 이어 자금난(20.9%), 인력난(13.2%), 환율불안(12.8%) 순으로 지적함. <기타 9.1%>

[그림 2] 기업 경영애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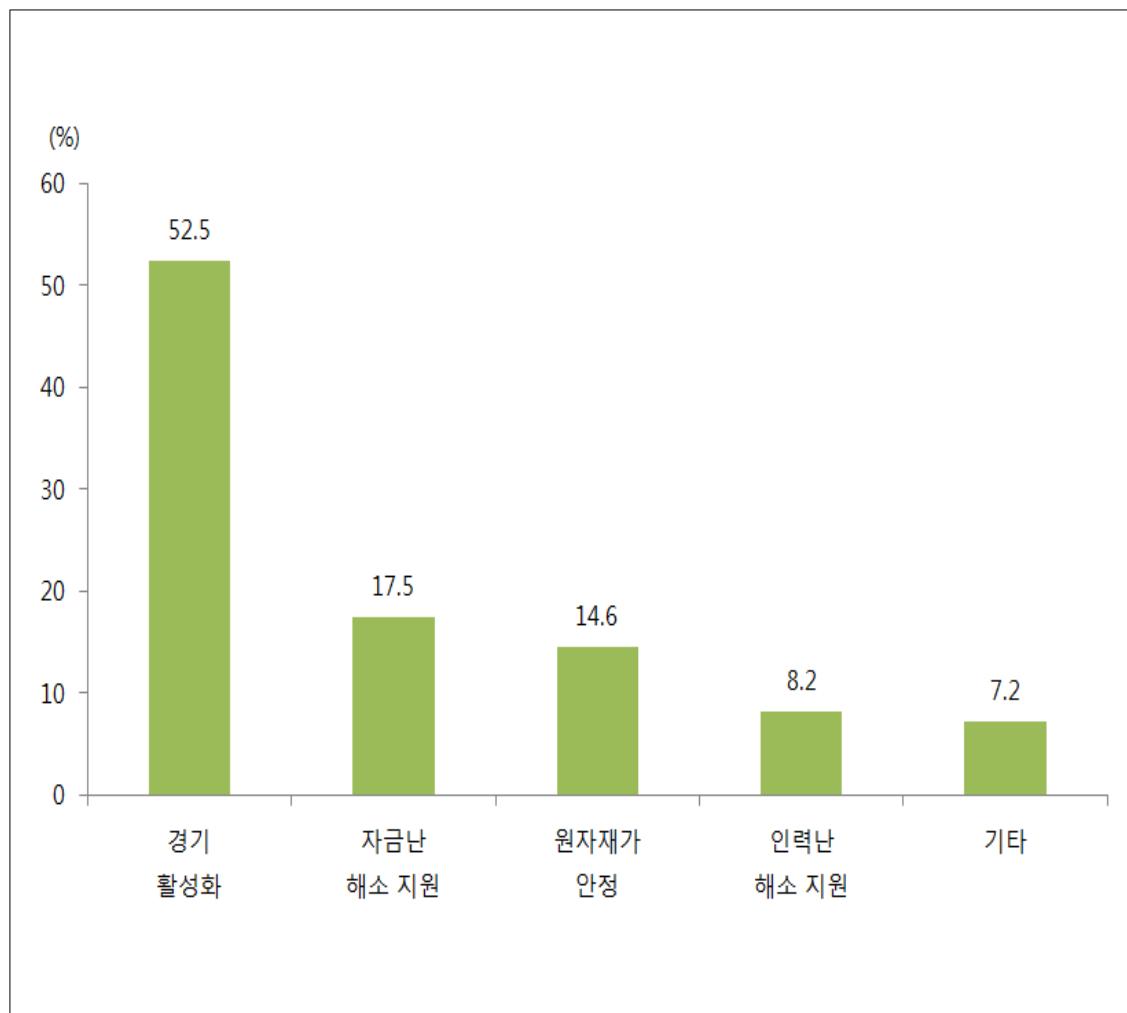


2. 정책과제

○ 기업들은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로 '경기활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전체 기업의 절반이상인 52.5%가 경기활성화로 답함. 이어 자금난 해소 지원(17.5%), 원자재가 안정(14.6%), 인력난 해소 지원(8.2%) 순으로 조사됨. <기타 7.2%>

[그림 3] 정부의 정책과제



IV. 시사점

○ 최근 경기지표의 호전과 함께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된 점과 올해 들어 소비, 건설투자 등의 개선이 기업의 경기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올해 1월 소매판매(전년동기비 5.7%)는 3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건설기성도 올해 1월까지 13개월째 플러스 성장 지속
 - * '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 : 1.5(13.1Q)→ 2.3(2Q)→ 3.3(3Q)→ 3.9(4Q)

○ 다만, 우리나라 경기가 대외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본격적인 경기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유럽 등의 경기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

- 중국정부의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우려, 유럽의 경기부진·디플레이션 우려, 신흥국 경제불안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임.

○ 대내적으로는 소비를 저해하는 가계부채 불안해소와 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이 기업 경기회복의 확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함.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1,021조원을 기록하며 1,000조를 넘어섬. 2분기 BSI의 세부항목 중 자금사정만이 기준치(100) 이하이며, 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수요부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정부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경기활성화 정책인 '경제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질 개선·혁신을 통해 본격적 경기회복 후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동향분석팀 손영기 팀장(02-6050-3442), 민경현 대리(3443)에게 하시기 바랍니다.